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정신 지체 4)

정신 지체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신 지체를 수술이나 약물로 교정하여 높은 지능을 갖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 장애는 영구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능 발달의 지연(遲延)이 특히 불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을 때는 교육과 보살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만회할 수는 있다. 지능이란 타고난 능력과 환경적 영향의 총화(總和)로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 지체 그 자체는 성장 발육의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된 하나의 증상이며 단일 질병 단위가 아니다. 각각의 예에 따라 원인, 증상 또는 그 병리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이 보통이다.

원인적으로 정신 지체를 분류하면 감염과 중독, 물리적인 뇌의 손상, 대사 장애, 출생 후 뇌종양 등의 심한 뇌 질환에 의한 것, 출생 전 뇌에 발생한 어떤 영향, 다운(Down)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 미숙아, 자폐증, 환경적 영향에 의한 정신 지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 심리학적인 원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와의 관계이다.

아이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시기에 어머니가 어떤 원인으로든 적개심, 죄책감, 거절하는 태도 등을 보이면 아이의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또는 만성 정신 질환 등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에게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줄 수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이가 어린 시절 수용 시설에서 양육되는 것 또한 모성애의 부족과 경험 박탈로 인한 지능 발육의 장애를 초래한다. 부모 밑에서 자라더라도 그 부모가 지적인 능력이 낮고 저소득층일 경우 자라나는 아이에게 자극을 적게 주고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적 박탈'을 유발한다.

그러나 원인이 어디에 있건 정신지체아의 치료에 중요한 것은 가족 중의 한사람이 정신지체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가족과 의사,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조하여 그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이다.

정신지체아의 가족에는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며 “혹시 바보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인지체아임을 확인할 때, 학교에 보낼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사춘기가 다가와서 성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 직업 적응의 문제, 결혼 문제, 수용 시설에 보내기를 결정 할 때 등이 그것이다.

자신의 아이가 정인지체아임이 확인될 때 부모들은 보통 강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고 더러는 그것을 부정하기 마련이다. 때로는 정상임을 고집하고 환자에게 비현실적인 것을 기대하는 나머지 온 가족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잉보호를 하거나, 아이에게 분노와 죄책감을 가짐으로써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확실히 정인지체아임이 확인되면 그 아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적응하도록 온 가족이 노력해 주어야 한다.

정인지체아들에게는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식사하기 등의 행동 수정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하고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 후에는 특수 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기가 되면 이들은 때때로 자신들에게 봉착한 사회 적응의 문제, 사춘기의 문제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수가 많이 있다. 또 이 시기의 정인지체아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 노력의 결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의 표현으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정인지체아들에게서 정신 질환의 빈도는 일반 인구의 7%에 비해 훨씬 높은 50%정도이다. 즉 정인지체아들의 절반은 언젠가는 흥분,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비록 이들이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적절한 수준의 사회 적응 훈련을 해 나가면 이들 또한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